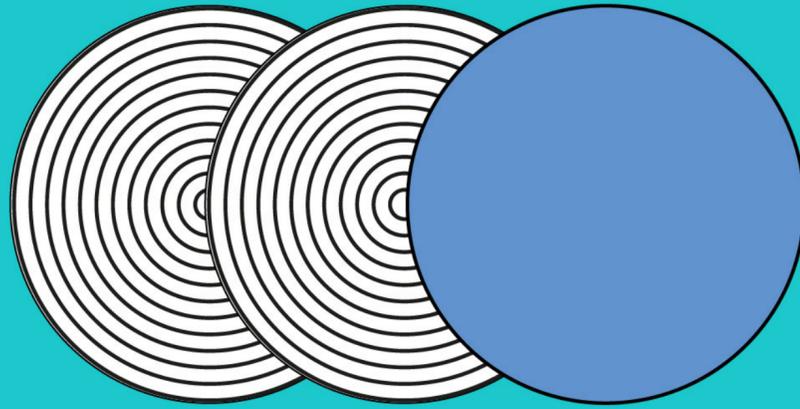


충남사회혁신x사회적경제포럼

새로운 사회 새로운 경제



2022.03 ~ 06

[충남사회혁신포럼]
시즌2. 새로운 사회 새로운 경제

4월 주제. 새로운 실천

22.04.26(화) 15:00-17:00

현 장 카페엠99(충남 태안군 남면 몽산포길 99-40)

온라인 충남사회혁신센터 유튜브

참여신청링크



3월 주제. 새로운 시선
<도넛 경제학과 국민총행복>

5월 주제. 새로운 결합
<기후시민과 사회적경제>

6월 주제. 새로운 여가
<생태적, 포용적 지역살림 여행>

행정안전부 충청남도 충남사회혁신센터 충남사회적경제지원센터

4월 주제. 새로운 실천 <그린 인플루언서와 일상의 실천가들>



이주은
알맹상점 대표



김하늘
업사이클 디자이너



송재원
요일 대표



STARBUCKS

Nathan's
Since 1916

- FLAVOR / SPECIALTY
- | | |
|---|--------------------------------------|
| <input type="checkbox"/> DARK ROAST | <input type="checkbox"/> MILK |
| <input type="checkbox"/> DUNKIN' DONUTS | <input type="checkbox"/> SUGAR |
| <input type="checkbox"/> ICED LATTE | <input type="checkbox"/> ESPRESSO |
| <input type="checkbox"/> ICED CAPPUCCINO | <input type="checkbox"/> SWITCH |
| <input type="checkbox"/> ICED MACCHIATO | <input type="checkbox"/> SWITZERLAND |
| <input type="checkbox"/> ICED AMERICANO | <input type="checkbox"/> ESPRESSO |
| <input type="checkbox"/> ICED TEA | <input type="checkbox"/> ESPRESSO |
| <input checked="" type="checkbox"/> BLACK CREAM | <input type="checkbox"/> ESPRESSO |

COMMITMENT
SUPPORTING THE
JOY

SINCE 1904
CANADA



An underwater photograph showing a large amount of plastic waste floating in the water. The water is a deep blue-green color. The plastic waste includes several large, crumpled white plastic bags, smaller pieces of clear plastic, and some blue and green fragments. The scene is a stark representation of marine pollution.

바다에 버려지는 플라스틱

매년 **800만톤**



1인당 플라스틱 소비량

단위 : k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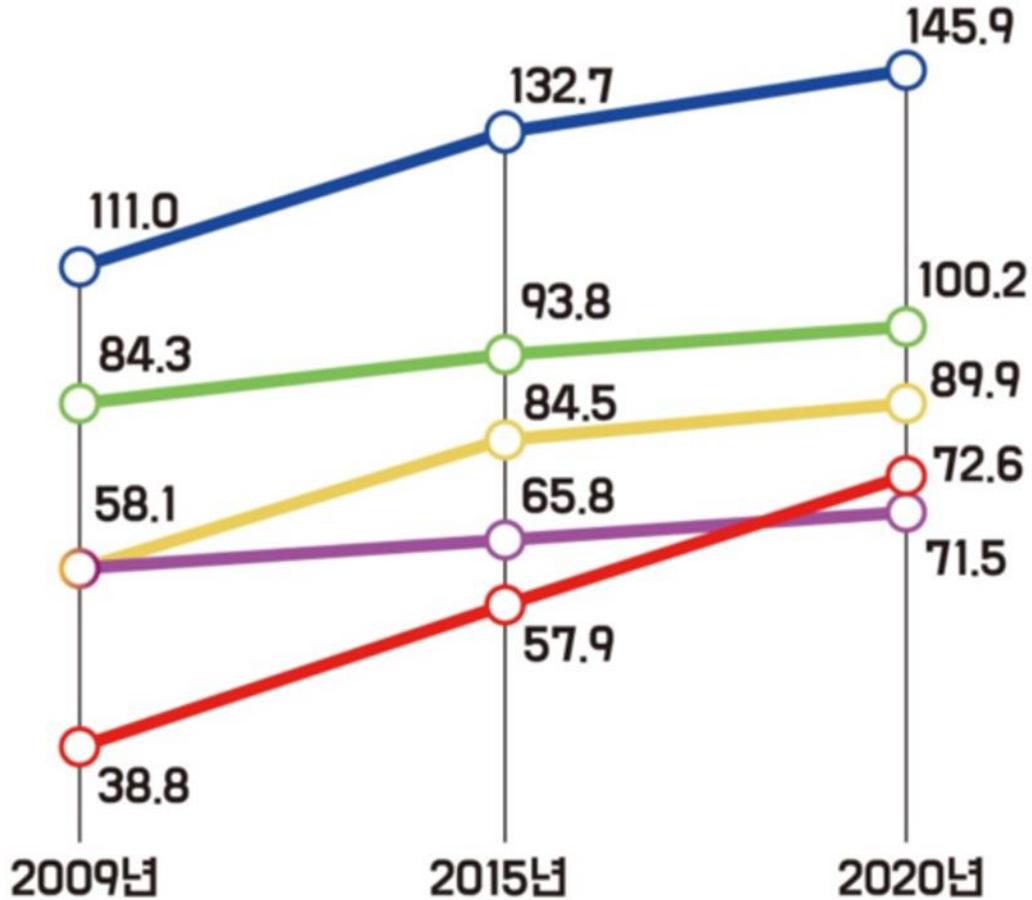
한국

미국

서유럽

일본

중국



지난해 8월 한달, 주요 배달 앱 서비스 결제자

1,604만 명

일회용품 소비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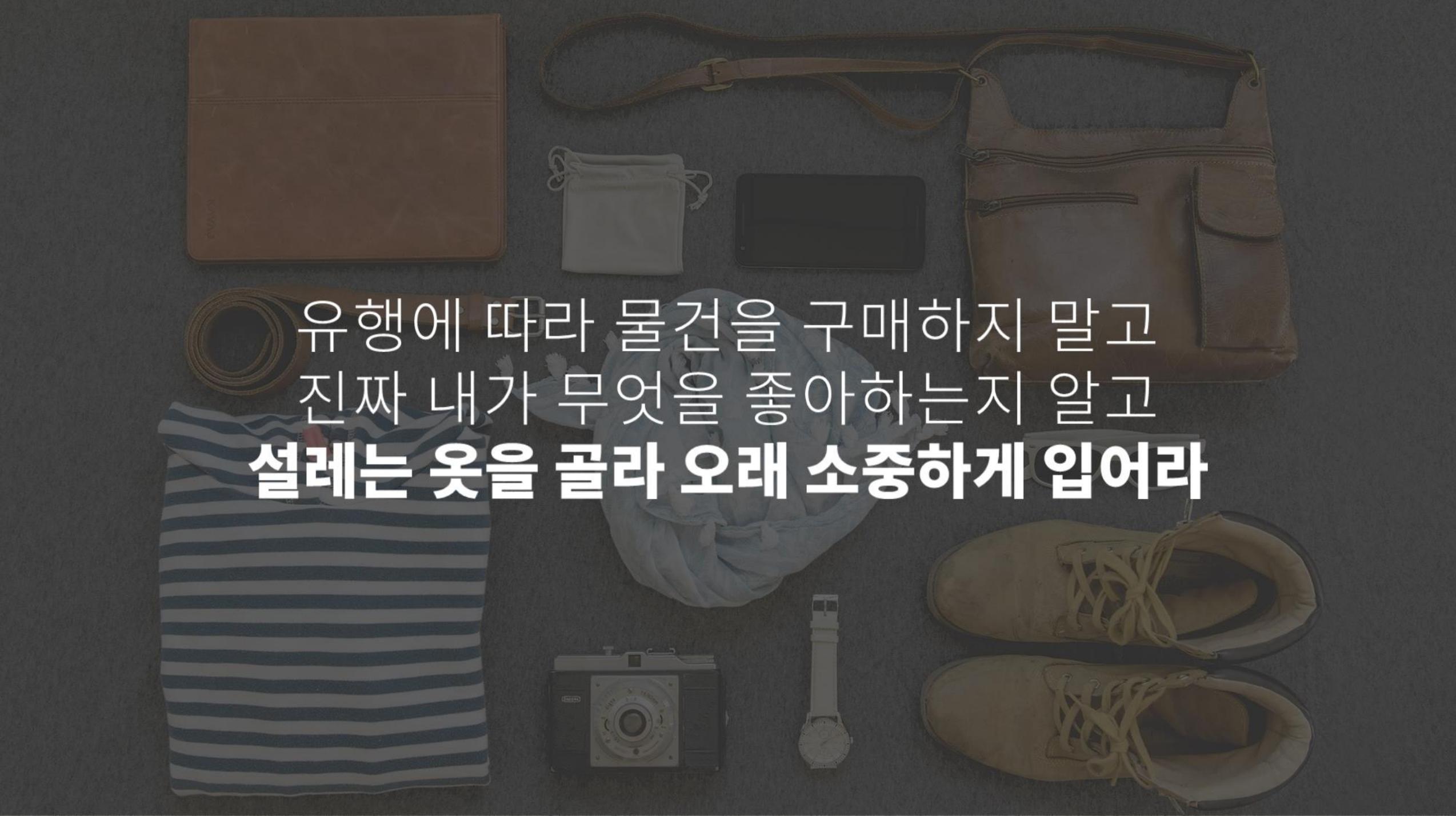
약 1억 5,520만 개

플라스틱 소비량

“설레지 않으면 버려라”

- 곤도 마리에





유행에 따라 물건을 구매하지 말고
진짜 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알고
설레는 옷을 골라 오래 소중하게 입어라

...

...

...



Plogging

Plocka upp + Jo**g**ging

이삭을 줍다

달리다



5R

REFUSE / 거부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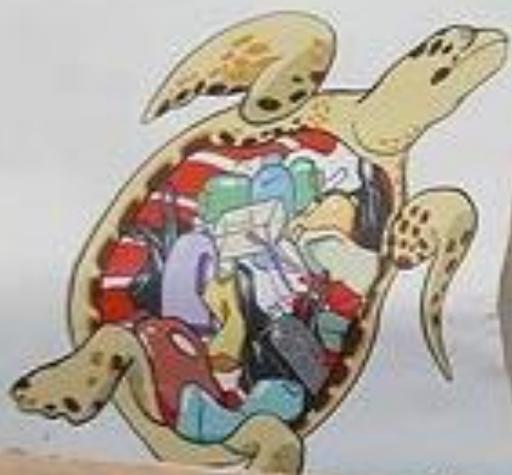
REDUCE / 줄인다

REUSE / 재사용한다

REPURPOSE / 퇴비화한다

RECYCLE / 재활용한다

NO
PLASTIC
SUNDAY



플라스틱

NO



SOUL
FESTIVAL

14일 금요일
합원시장 전문, 서울로 '이러쿵'으로 만남
No Plastic market
AlmangMangwon



대여증
(시방 나 글서해여)
합원시장 전문, 서울로 '이러쿵'으로 만남
No Plastic market
AlmangMangwon



대여증
(시방 나 글서해여)
합원시장 전문, 서울로 '이러쿵'으로 만남
No Plastic market
AlmangMangwon



대여증
(시방 나 글서해여)
합원시장 전문, 서울로 '이러쿵'으로 만남
No Plastic market
AlmangMangwon



대여증
(시방 나 글서해여)
합원시장 전문, 서울로 '이러쿵'으로 만남
No Plastic market
AlmangMangwon

DESIGN
Market



Refill Station

안녕하세요!
친구들!
플라스틱 프리

친구들!
플라스틱 프리

Rabbit

500ml

500ml

500ml

Wi-Fi



경남생생미술관







1월 30(토), 31(일)일 이틀동안

화장품은 약 1000개
액상세제는 약 800개
가루세제는 약 200개

100ml 기준으로 대략 2000개의 플라스틱 용기를 줄였다.

2021.01.31 일기



쓰레기를 줄이는
작은 마음들의 플랫폼
커뮤니티 회수센터







쓰레기를 줄이는 대안 최소 리필스테이션



2020년 6월 - 2022년 3월
리필세제 판매량 6547L, 화장품 판매량 4198L
총 합계 10,745L, 100ml 기준용기 107,450개 절감

- 1년 동안 각 제로 웨이스트 가게에서 약 6만 개 이상의 플라스틱 용기를 줄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외 불필요한 포장재까지 합한다면 더 많은 쓰레기를 줄일 수 있음

물물교환 공유센터

약 1년간 공유된 물건

1400여개

알맹이마켓 공유센터
사람들이 쓰는 물건은 물론 다양
이런저런 장면이 이야기를 나눠주세요.
누구는 가져가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의 인사도 남겨주세요 :)

나에게 관심
주어준 분들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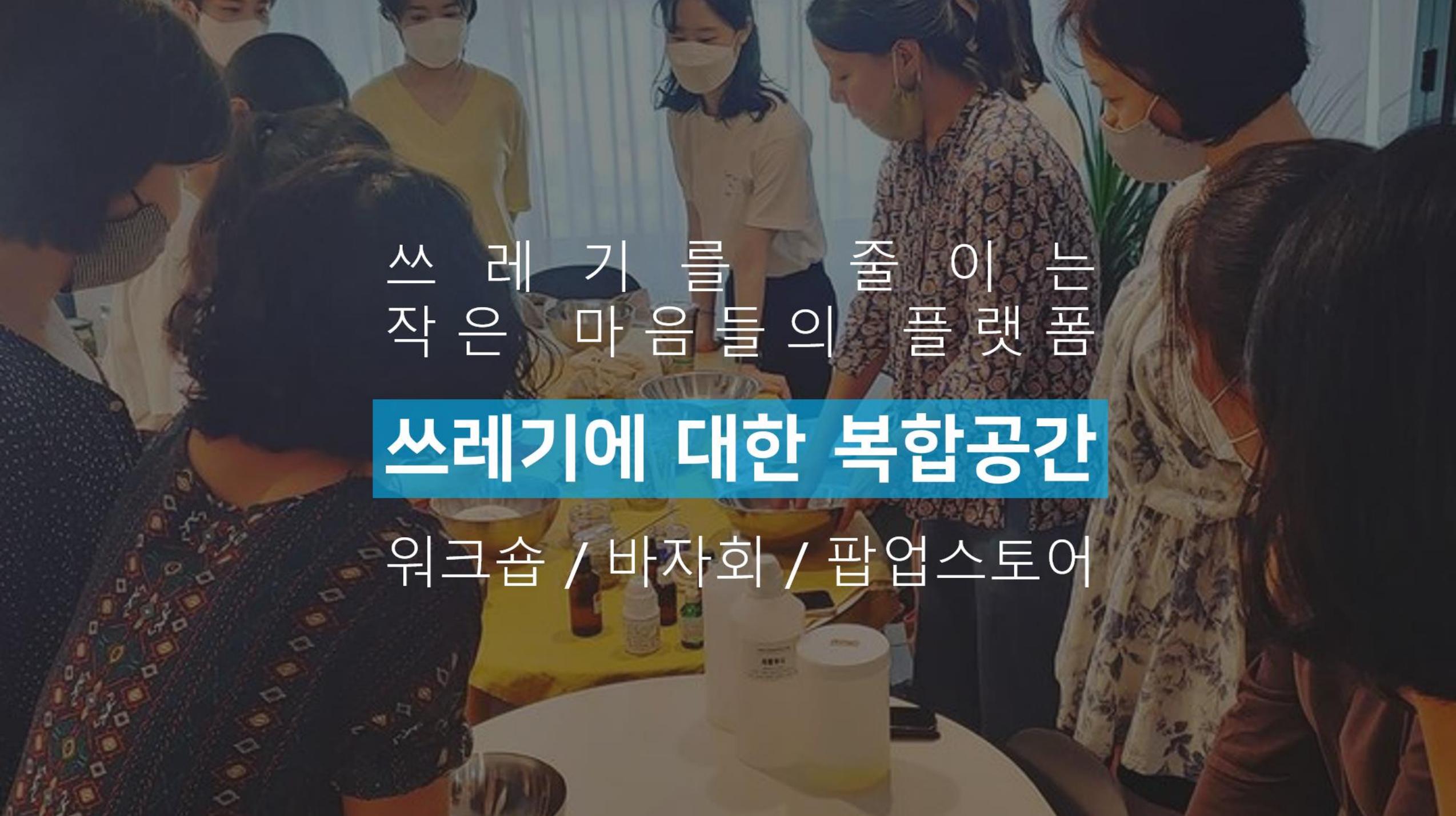
감사합니다 다음
잘보고 가요~
의미, 귀여우유 :)

전반도 감사드립니다
(공자도)
평판 아주 아꼈어요!!

많은 사랑
감사합니다!

알맹이마켓
너무조아올게

다음에
포클레요
M.J.H



쓰레기를 줄이는
작은 마음들의 플랫폼

쓰레기에 대한 복합공간

워크숍 / 바자회 / 팝업스토어





무엇을 플라스틱
재활용 해야하나요?
화장품 용기
재활용선 시급하라!

화장품 용기
재활용선 시급하라!

화장품 용기
재활용선 시급하라!

비싼 화장품 잔액만 회수할 용기
다른 용기 회수해
재활용 체계 갖춰라

화장품 기업은
90% 재활용 안되는 예쁜 쓰레기를 책임져라.

OTHER
TIER

'나' 조치가 아닌

'나'부터

바뀌어야한다

Designer of Haneul Kim, About the 'Stack and Stack'



Making process for 'Stack and Stack' (1)



Making process for 'Stack and Stack' (1)



Making process for 'Stack and Stack' (2)



Making process for 'Stack and Stack' (3)



Making process for 'Stack and Stack' (3)



Making process for 'Stack and Stack' (4)



‘Stack and Stack’, Done







Faced with new environmental problem (1)



Faced with new environmental problem (2)



The new chair, arises from another environmental problem.



The new Table, arises from another environmental problem.



My future plans (1)



My future plans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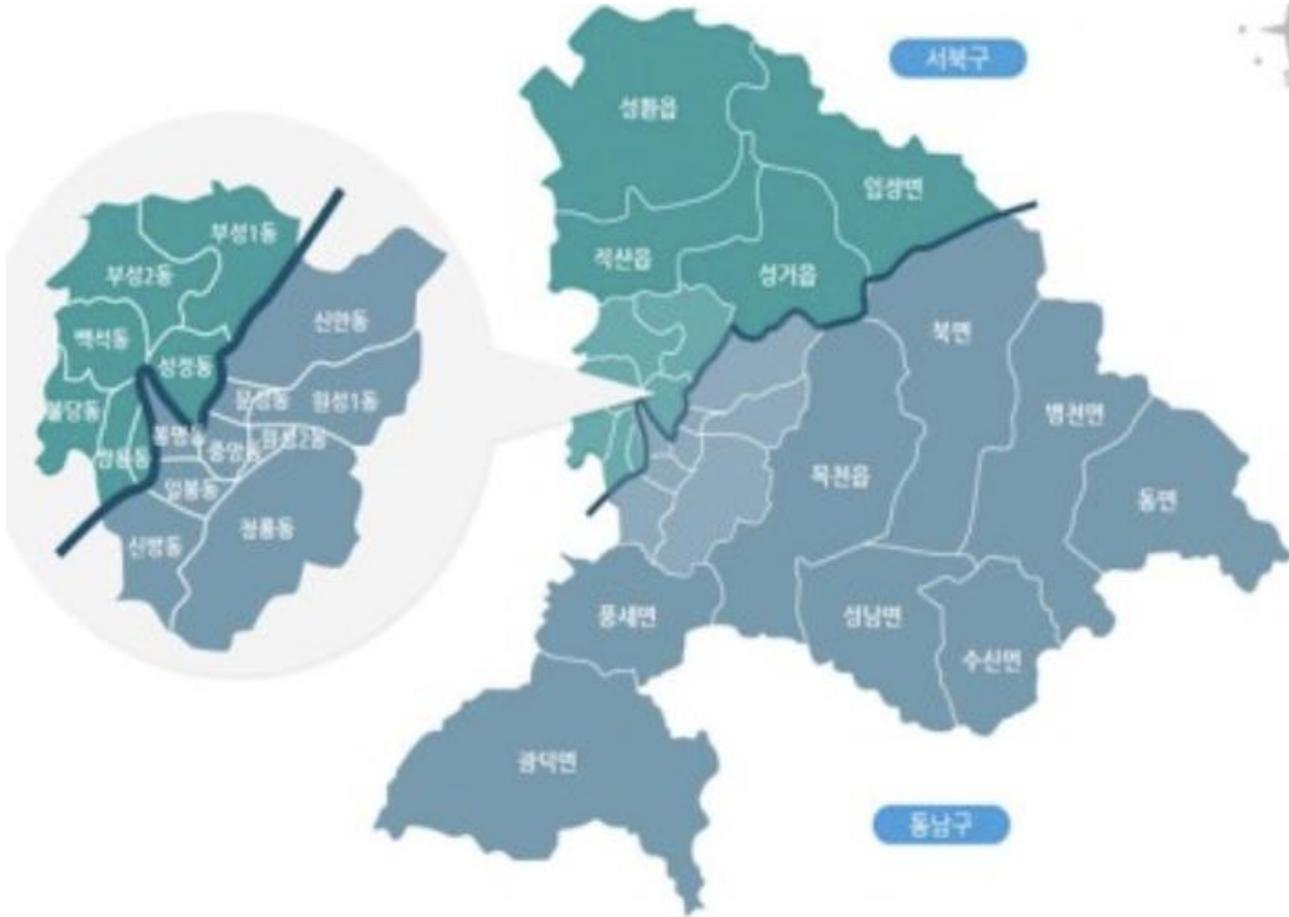


Sustainable design scalability?

Thanks



지역에서 환경운동을 해야하는 이유



천안은 인구가 70만에 가까운 "중소도시"입니다. 인근 지역인 아산시민까지 생활권으로 한다면 100만에 육박한 "특별시"급의 도시입니다.

그러나 천안에는 환경관련 제로웨이스트 샵은 2 곳으로 소비자들의 생활권과는 거리가 꽤 있는것이 현실입니다. 20 ~ 30대 대학생들이 많은 천안은 소비가 많이 이뤄지는 곳이지만 "환경"을 주제로 하는 샵들은 다른 도시에 비해 현저히 적습니다.

서울, 경기권이 아닌 지방에서 환경관련 콘텐츠를 운영하기 힘든 이유는 "사업성 부족"으로 지방에서만 환경을 주제로하는 샵들의 다양성이 필요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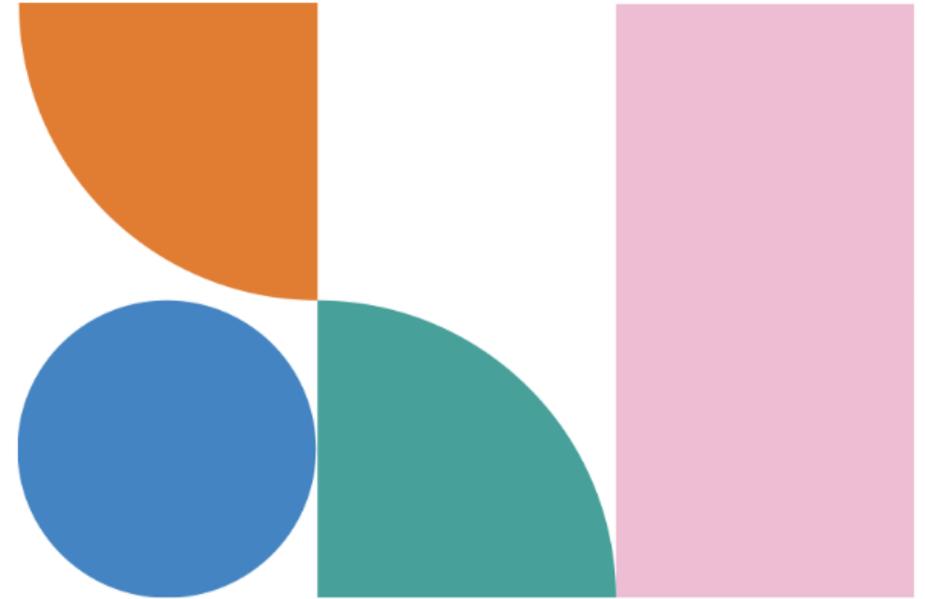
이는 우리가 왜, 지역에서 환경운동을 해야하는지 알려주고 있습니다.

무너짐을 위한 쌓아올림.(지방의 다양한 실험)



환경을 위한 가방을 만드는 업사이클 가방 브랜드 패롬[PARROM]입니다. 단순한 업사이클을 넘어 소비자에게 새로운 가치와 라이프스타일을 제시하는 브랜드 패롬을 소개합니다.

2019년 와디즈 펀딩 - 환경을 위한 가방 "Parr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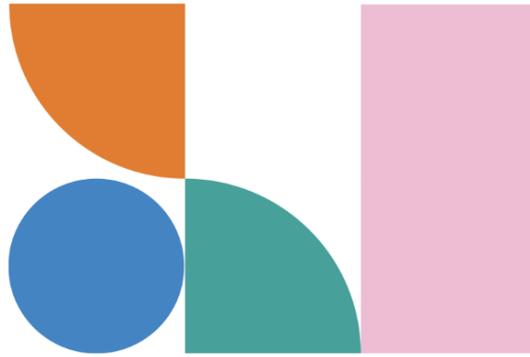


2020년 충남사회혁신센터 - 리빙랩(living lap) 참여

천안 신부동의 작은가게, 요일(yoil)

Cheonan shinbudong terminal 6 12st 107

patagoni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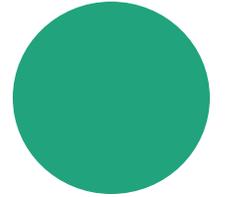
yoil

Yogurt & Granola

제품제작 단계부터 환경적 요소를 고려한 제품을 만들 수 있을까?

충청남도 자원 조사

- 충남은 타 지역에 비해 넓은 산, 초원 등이 많아 젖소를 키우기 좋은 환경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농축산업과 중대형 유가공품 업체들이 자리잡고 있습니다.
- 지역에 있는 중형 유가공품 업체를 통해 직접 1등급 우유를 받아 사용하여 이동거리를 줄여 "탄소배출 자체를 줄이는 요거트"를 개발하였습니다.
- 천안은 "호두"가 꽤나 유명합니다. 이미 호두과자가 시그니처 아이템으로 자리잡고 있어, 호두와 몇가지 곡물을 합쳐 "그래놀라"를 개발 하였고 여기서 광덕산의 꿀을 사용하여 지역의 자원을 활용한다는 가치를 지켜나가고 있습니다.
- 제품제작 단계에서, 환경적 요소를 고려한다. 이것은 요일(yoil)이 제품제작 단계에서 꼭 고려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제품 생산에 새로운 가치를 더하는 요일(yoil)

우리는 여지껏 지역의 제품을 "Local Food"라고 불러왔습니다. 로컬푸드를 브랜딩 하지 않고, 고객이 필요로 하는 니즈(Needs)로 접근합니다. 요일(yoil)의 고객은 맛있는 제품 구매자체만으로 환경운동에 참여할 수 있는 가치를 제공합니다.



무엇보다 맛

지역의 우유로 만든 제품은 적당한 발효시간과 온도를 통해 신맛이 강하지 않고 적당한 크림함량이 크림치즈같은 느낌을 줍니다.

크림함은 요일 요거트를 다양한 방법으로 먹을 수 있도록 돕습니다.



적당한 가격

소비자들은 적당한 가격으로 요일의 요거트와 그래놀라를 만날 수 있습니다.

타 가게 보다 낮은 가격과 용기내 프로젝트는 손님들에게 매력적으로 다가옵니다.



환경적 가치

요일은 환경에 진심으로, 구매 자체만으로도 환경 콘텐츠에 참여가 가능합니다.

용기내, 우유팩 재활용, 탄소발걸음 등 환경가치를 추구하는 분들은 지속적으로 찾아주고 계십니다.

지역의 다양한 주체와 함께 하는 환경운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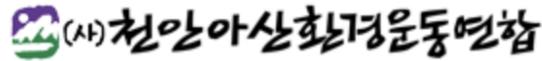
환경운동은 지역의 단체, 시민들의 참여, 가게 등 다양한 주체들이 함께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어떻게 이들을 함께하고 확장시켜나갈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합니다. 요일(yoil)을 중심으로 다양한 지역의 주체들과 환경운동을 확장할 계획입니다.



다회용기의 사용

요일(yoil)에서는 기본적으로 요거트 포장시 다회용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는 한번 사용하고 버리지 않음을 안내드리며, 지속가능한 사용과 재사용시 혜택을 드리고 있습니다.



연대

천안아산환경운동연합과 연대를 통해 요일에서 사용되는 우유팩은 자원봉사를 통해 재활용되고 있습니다.

이를 취약계층에게 종량제봉투 혹은 휴지로 재활용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현재 3,000개 이상의 우유팩이 재활용되었습니다.



환경적 가치

지역의 특성상 카페가 많아, 인근 가게들에게 환경운동 참여를 제안 현재 3곳의 카페가 우유팩 재활용 및 용기내 프로젝트하고 있습니다.

향후, 아이스팩 재활용에도 함께 할 계획.

향후 환경운동은 어떤 영역으로 확장할 수 있을까?

현재 우리나라에서 환경운동(Movement)은 제로웨이스트, 리필스테이션 등 제한적영역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환경은 가치이며 다양한 곳에 대입시킬 수 있습니다. 시민들 삶에 더욱 가까이 가기 위해 향후 어떤 영역으로 확장 시킬 수 있을까요? 그리고, 그것이 설득이 아닌 공감과 참여가 될 수 있을까?

요일(yoil)은 아직 10개월 밖에 안된 지역의 작은 가게입니다. 아직도 지속가능성에 대한 고민과 어떻게하면 더욱 환경적인 제품들을 개발할 수 있을까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작은 가게이지만, 그 가치를 지속해서 향한다면 일반 시민들 삶에 환경운동(Movement)은 피부로 와 닿을 수 있으며 쉽게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이는 삶에서 새로운 교육이 되며, 그렇게 경험한 환경 콘텐츠는 조금씩 삶에서 묻어나게 됩니다. 작은 움직임이 모여 큰 활동이 되듯, 가장 작은 단위부터 우리는 환경을 고민해야 합니다.

또한, 다양한 손님들을 만나면서 경험하게 된 것은, 이런 것에 관심있는 손님들도 있지만, 대부분의 시민들은 환경문제에 대해 피부로 와닿지 않는 것이 현실입니다. 앞으로 환경운동이 시민들을 설득하는 것이 아닌 어떻게 공감을 얻고 참여할 수 있는 콘텐츠를 제공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할 것입니다.

향후, 우리나라에서의 환경운동은 어떤 영역으로 확장해야하며, 어떻게 시민들의 참여를 이끌 수 있을까 지금 여기에서 고민과 실천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